

평 화 선 언

인류를 멸망시키는 무기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시민의 머리 위에 투하된 지 어언 64 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피폭자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4 년 전의 방사선이 아직도 몸을 쪼먹고 있고 64 년 전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피폭한 체험의 무게만큼 법적으로도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폭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사실을 검허하게 받아들인 용기있는 사법 판단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일본 정부는 “검은 비가 내린 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폭자를 포함하여 고령화된 피폭자들의 실태에 맞는 지원 대책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이번에는 말로 중앙 관청과의 벽을 허물고 “이런 고통을 그 누구에게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피폭자들의 비통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2020 년까지 핵무기 철폐 운동의 기수로서 세계를 리드하여야 합니다.

올해 4 월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유일한 핵무기 사용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명언했습니다. 핵무기 철폐는 피폭자 뿐만 아니라 세계 대다수의 시민 및 국가들이 소망하고 있으며 그 목소리에 오바마 대통령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철폐 외에는 의미 없는 핵무기”라는 자리매김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이에 응하여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핵무기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적인 다수파인 우리 자신을 “오바마조리티 (Obamajority)”라 칭하고 힘을 모아 2020 년까지 핵무기 철폐를 실현하기 위해 전세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세계적으로 더욱 호평받고 있는 일본국 헌법 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맹 도시가 3,000 이 넘는 평화시장회의에서는 “2020 비전”을 구체화한 “히로시마 · 나가사키 의정서”를 내년에 있을 NPT 재검토 회의에서 채택되도록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채택 후의 계획은 핵실험을 강행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등 모든 국가의 핵무기 취득 · 배치를 즉시 정지시키고 핵 보유국 · 의혹 국가 등의 지도자 피폭지 방문, 유엔 군축 특별 총회 조기 개최, 2015 년까지 핵무기 금지조약 체결을 하기 위한 교섭 개시, 그리고 2020 년까지 모든 핵무기 철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가사키시에서 열리는 평화시장회의 총회에서 더욱 자세한 계획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2020 년이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많은 피폭자들과 함께 핵무기가 철폐되는 날을 맞이하고 싶어서이며, 또한 우리 세대가 핵무기를 철폐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 대한 최소한 책임마저 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철폐를 시야에 두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글로벌 · 제로와 핵 비확산 · 핵군축에 관한 국제위원회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2020 년을 지향하는 그룹에 참가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인 지뢰 금지, 그라민 뱅크의 도움으로 빈곤에서 해방되고 온난화 방지 등, 대다수 세계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시민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구 규모의 민주주의가 오늘 날 바야흐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싹을 키우고 더욱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심장부에 이런 시민의 목소리가 직접 가 닿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 전쟁 같은 크나큰 비극을 체험한 도시 100, 그리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 100, 도합 200 도시로 구성된 유엔의 하원을 창설하여 현재의 유엔 총회를 상원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

피폭 64 주년 평화기념식전에 즈음하여 우리는 원폭희생자들의 영전에 가슴 속 깊이 애도를 표하며 나가사키시, 그리고 전세계의 다수파 시민, 국가들과 손을 잡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바마조리티입니다. 힘을 합치면 핵무기를 철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2009 년 8 월 6 일

히로시마 시장 秋葉忠利

번역 : Ability InterBusiness Solutions, Inc.